

한국의 문화발전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박 인 용**

〈목 차〉

I. 서 론	3. 한국인의 독서경향
II.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역할	4. 문화현상과 독서경향의 관계
1. 공공도서관의 목적에서 본 문화봉사	IV. 독서의 효과
2. 공공도서관 문화봉사의 실제	1. 도덕성
III. 한국의 문화	2. 창의력
1. 한국의 문화현상	3. 사고력
2. 청소년문화	V. 결 론

I. 서 론

근래 우리사회에서는 대형의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것들은 대개가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하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가치나 의식에서 초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이러한 가치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과연 도서관과 무관한 것일까? 만약 이와 같은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우리 사회 전분야를 뒤흔들어 과히 망국의 위험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국가적, 국민적 문제에 도서관이 아무 관계도 갖지 않는다면 도서관의 존재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도서관은 사회기관이라는데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또 무엇일까? 본 연구는

* 이 논문은 1994학년도 부산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한 사회의 특정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식·사고방식·태도 등의 총체는 그 사회의 문화로서 이해된다. 인간은 여러가지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독특한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러나 문화는 인간의 태도나 가치를 집단별로 사회별로 유형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과 태도를 조건지우고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문화적 요인 이외에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개인이 자라난 환경 및 개인 스스로의 경험이 있다. 개인의 생물학적 요인이 그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런 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의미는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사건·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우리 국민의 부도덕한 의식과 가치관은 문화적인 영향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적 특성은 어떠한 것이기에 그와 같은 인간파괴적인 의식이 만연되었을까? 우리의 문화로서는 그와 같은 가치관을 형성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앞으로 문화의 변화·개선으로 또 바람직한 유형의 문화창조로서 잘못된 의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문화의 목적이 공공도서관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문화현상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관련성 내지는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고, 미래의 사회구조에 적합한 문화유형을 예측하고, 그 유형의 문화창조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찾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성취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국민의식을 바로 잡고 사회개선에도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II.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역할

1. 공공도서관의 목적에서 본 문화봉사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근원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중에서 특별히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목적에서 문화항목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경우로서, 영국도서관협회는 1971년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 교육

- ① 개인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촉진한다.
- ② 공식교육계획을 보충한다.
- ③ 특수주제자료의 장서구성을 촉진한다.

(2) 정보

- ① 정보센타로서 도서관의 이용을 촉진한다.
- ② 특수정보원에 대한 참고질의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권장한다.

(3) 문화

- ① 개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술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권장한다.
- ② 공공도서관 사서가 문화행사의 발안자 및 조직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권장한다.
- ③ 공공도서관 사서가 지방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 유대를 갖도록 권장하고

- 예술분야에서 건설적으로 여가를 이용하도록 촉진한다.
- ④ 지방단체와 문화단체를 위한 특수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권장한다.
- ⑤ 문화·정보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권장한다.

(4) 여 가

- ① 개인을 위한 일반여가자료의 제공을 촉진한다.
- ② 지역사회의 특정집단에 대한 여가이용봉사를 촉진한다.¹⁾

이상의 항목중에서 (3)문화 항목의 내용을 살펴 보면, ②의 세항목(細項目)은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활동과 영화, 비디오 등 시각예술과 문학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기관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② 및 ④의 세항목은 공공도서관이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 및 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③의 세항목은 지방의 여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대중적 문화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⑤항은 문화 관계 문헌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공공도서관은 고급문화와 동시에 대중문화를 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목적에는 민속·민족문화로서의 전통문화에 관한 언급이 없음이 의아스럽게 생각된다.

다음으로 (4) 여가항목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여가자료 이용봉사와 여가활동봉사를 하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항목의 여가 이용활동과 여가항목에 있는 여가선용봉사와의 의미가 다른 내용의 것인지 아니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중복된 동일한 내용일 수 밖에

1) The Library Association, Public Library Research Group of the London and Home Counties Branch, "Public Library Aims and Objectives", *Library Association Record* 73(1971), pp.233-234.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43년 [전후 공공도서관 기준]에서 ① 교육 ② 정보 ③ 예술감상 ④ 연구 ⑤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²⁾ 이 후 1956년 미도서관협회에서 제정한 [공공도서관봉사 : 최저기준과 평가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 ① 지역사회내 모든 사람의 비정규적인 자기교육을 촉진시키는 일
- ② 개인이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주제를 더욱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는 일
- ③ 모든 사람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일
- ④ 단체의 교육적 시민적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일
- ⑤ 전전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의 건설적 이용을 권장하는 일³⁾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① 교육, ② 정보, ③ 문화, ④ 레크리에이션으로 정리된다.

그 후 1987년 미도서관협회가펴낸 「공공도서관 계획 및 역할설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 활동센터

지역사회의 제반활동, 회합 및 봉사를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② 지역사회 정보센터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의 역할을 한다.

③ 공식교육 지원센터

모든 연령계층의 학생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공식적인 학습과정 중에 설정된 교육목적을 충족시킨다.

④ 자습센터

2) 이용남, 「공공도서관 목적의 구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 20.

3) 실계논문, p. 21.

어떠한 교육기관에 의해 추진되는 자습 프로그램이든 간에 이를 추구하는 모든 연령계층의 개인들을 뒷받침한다.

⑤ 대중자료도서관

모든 연령계층이 높은 요구와 흥미를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대중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⑥ 취학전 아동의 학습장소

취학전 어린이와 부모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어린이들의 독서와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개발한다.

⑦ 참고도서관

지역주민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⑧ 연구센터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특별한 지식분야를 탐구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려는 학자와 연구자들을 지원한다.⁴⁾

여기에서는 특별히 문화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문화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물질, 제도, 가치, 규범이라고 보았을 때, ①항목의 지역사회 의 제반활동은 문화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깨우치며 사고하는 제 활동은 문화적 삶을 위한 것으로서 ④항목의 지습센타로서의 기능도 곧 문화적인 기능인 것이다. ⑤항의 대중자료 도서관의 역할도 문화적 역할이다. 왜냐하면 대중자료를 통하여 대중文化를 접하고 삶의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은 문화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 3조 2항에 “공공도 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교양과 조사 연구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공함을 목 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무래도 공공도서관과 문화와의 관계성을 과소평가하

4) 상계논문, pp.22. 85.

고 있는 듯하다. 문화적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한 당시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81년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목적으로 9개 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주민의 평생교육적 사회교육을 주관하고 지원하는 민중의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 ② 지역사회의 고유한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케 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 한다.
- ③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성장을 돋기 위한 독서교육 여가선용활동 등의 교육 및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 ④ 노인, 부녀자, 정규교육기회의 상실자 등을 위한 특별한 교육문화 복지적 활동을 전개한다.
- ⑤ 지역주민의 정치 및…
- ⑥ 지역주민의 직업적인 기능을…
- ⑦ 지역주민의 교양과 지식 및 학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
- ⑧ 지역주민의 여가를 선용케 하여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며 이로써 각자의 재창조력을 활성화한다.
- ⑨ 문학 예술을 감상하고, 고상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양을 쌓게 하여 각자의 정신순화를 통한 사회정화를 이룬다.⁵⁾

여기서는 문화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문화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기능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독서를 통하여 문화향유 능력을 갖도록 독서지도를 하는 기능이 포

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pp.13-14.

함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 부녀자, 정규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기능, 즉 대중문화를 접할 기회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건전한 대중문화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설정하고 있다. 이ول려 지역 주민의 지식과 학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하며, 문학 예술의 文化활동기능까지도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7년 공공도서관의 소속기관이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전된 것은 도서관이 문화기관임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공공도서관의 문화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던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1994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공공도서관의 문화 기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①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 ④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⑤ 강연회, 김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여기에서는 ①항의 “자료”는 한 나라의 역사적 문화내용물을 뜻하는 것이고 ④ 항의 “독서생활화”는 독서가 곧 문화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독서생활화는 문화인의 기본적 생활양식임을 지적한 것이다. ⑤항의 각 활동들은 실질적인 문화 활동들이다.

이상으로 국내외에서 공공도서관의 목적으로 규정된 내용 중에서 문화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몬로(M. Monroe)는 미국내 여러 공공도서관을 사례연구하고 박물관장, 교육기관장, 관현악단 메니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문화활동내용의 모델을 작성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사회의 문화관련 자료요구에 대한 봉사
- ② 지역사회의 예술활동공연장 및 예술품의 전시장소 제공
- ③ 지역사회의 각 문화단체간의 예술활동 프로그램의 조정
- ④ 문화기관들의 연결망 개발
- ⑤ 인간적 가치를 문화활동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활동에의 협력
- ⑥ 예술의 경험에 필요한 기초적 감상 및 이해능력의 함양기능⁶⁾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①항은 예술창작자나 비평가 등의 전문가나 일반대중의 문화 관련 자료 및 정보요구에 대한 봉사를 중요시하고 있다. ②항은 문화행사 즉 공연 전시 회합을 위한 도서관시설을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것이고, ③항은 문화행사 관리에 대한 지원기능을 들고 있다. ④항은 문화활동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⑤항은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문제에 대하여 인도주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기능과 각종 문화단체 행사의 가치를 인간주의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해석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기능, 즉 문화행사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격의 평등을 인정하면서 계층이나 직업에 구분없이 지역사회의 주민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⑥ 항은 각종 예술 및 문화활동에 쉽고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습관적으로 독서행위를 함으로써 예술의 감상과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주민대중이 이러한 문화향유기회를 동등하게 갖게 하는 역할을 공공도서관이 가진다는 것이다.

6) M. Monroe, "The Cultural Role of the Public Library",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15, No. 5, (1981), pp. 6-14.

요약하면 문화활동에의 접근기회가 지역주민다수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기초적인 문화감상능력과 이해능력을 길러서 문화적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임을 (본로)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인도주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안목을 문화활동을 통하여 길러야 하는 일도 공공도서관의 몫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는 대중문화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고급문화향유능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결국 대중문화와 동시에 고급문화는 공공도서관이 관계해야 할 부분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도서와 기타 각종자료를 통하여 전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행사와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보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향상을 꾀하고 또한 전 인류의 문화를 보존 전달하여 새로운 문화창달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서양 도서관의 대중문화 보존과 전달의 역할이 없었던들 그들의 문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현대는 문화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을 충족시킬 문화전달통로의 확장과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바 여기에서도 공공도서관의 문화적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인식된다.⁷⁾

2. 공공도서관 문화봉사의 실제

오도넬(O'Donell)과 리드(P. Read)는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형태에 따라 영화 강좌, 회곡낭독, 비디오테이프 토론과 심포지움, 견학여행, 무용, 음악, 공예전시, 독서토론, 분임토의, 연극 등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⁸⁾ 그리고 로보탄(J. Robothan)도 유사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는

7) 이봉순 등저, "한국의 도서관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침립 20주년 기념논문집, 1979, p. 66.

8) 한국도서관협회,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도서관 협회, 1993, p. 36.

역할임을 주장한 바 있다.⁹⁾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미술관과 도서관을 동일한 관리체제 하에 두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도서관과 화랑이 동일한 빌딩내에 함께 설립되기도 한다. 따라서 영국의 도서관은 문예관 혹은 문화회관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도서관이 설립된 이래 위에서 살펴본 각종 문화적 기능들을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다. 즉 각종 도자기류, 직물류 또는 여러나라의 생활용품들의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여러가지 관심있는 주제에 관한 토론회, 강연회, 영화상영 등을 실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문화강좌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예컨대 Park and Recreation Department와 협력하여 그림, 수세공, 수예, 예술역사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였는가 하면 음악회도 개최하고 있다.¹¹⁾ 새로 운 경향의 봉사로는 조각의 모조품을 대출한다든가 그림의 대출같은 것이 있고, 이 조각품 중에는 미켈란젤로, 헨리무어, B.C. 6세기의 이집트인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¹²⁾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적 행사, 어린이를 위한 저녁식사극장을 개최하기도 하였다.¹³⁾

이렇게 볼 때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문화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 영국, 미국 등지의 공공도서관은 수백석의 좌석, 분장실, 영사실을 갖춘 극장시설과 회의실 지역사회관 회의장을 갖춘 도서관이 많이 있다.¹⁴⁾

다음으로 한국의 경우를 보면, 도서관협회의 연구자료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문화

9) 상계서, p. 36.

10) D. W. Dowies, "Libraries as Centers of Culture", *Public Librarianship, A Reader*,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1982, pp. 98-100.

11) *Ibid*, pp. 102-105.

12) 이봉순 등저, 상계서, p. 63.

13) 상계논문, p. 64.

14) D. W. Dowies, *op. cit.*, p. 106.

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시키고 있다.

(1) 주제별 프로그램 구분

독서지도, 문학, 어학, 음악, 미술, 공예, 서예, 요리, 건강, 취미, 향토, 문화, 예절, 스포츠 등

(2) 봉사대상별 프로그램 구분

유년, 초·중·고생, 근로청소년, 대학생, 성인, 주부, 노인, 장애자 등

(3) 사용하는 미디어 형태별 프로그램 구분

- ① 도서자료이용 : 자료전시회, 독서회, 낭독회, 북노트 등
- ② 구두커뮤니케이션 : 강연회, 강좌, 세미나
- ③ 비도서자료이용 : 전시회, 영사회, 레코드콘서트
- ④ 실연 : 실기·실습을 행하는 것 : 연주회, 합창회, 연극, 강습회, 무용
- ⑤ 소집단활동 : 토론회, 좌담회, 창작 및 비평활동, 소회의

(4) 도서관지원 방법별 프로그램

- ① 도서관이 직접 주최하는 것
- ② 도서관이 지역의 각종 단체와 공동주최하는 것
- ③ 주민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해서 도서관측은 장사, 조언자, 참고자료 또는 시설제공만을 지원하는 것¹⁵⁾

이상의 프로그램 종류별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268개 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이 겨울·여름독서교실과 도서관주간·독서주

15) 한국도서관협회,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pp. 37-38.

간행사를 실시하여 국교 3·6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의욕 고취, 독서습관양성, 도서관이용 생활화의 도모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독서회를 조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수와 비율은 180개관 67%이며 독서회를 조직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은 88개관 33%이다. 주부를 상대로 한 독서회가 51건 28%, 국교 고학년대상 독서회가 44건 24%, 중고생, 직장인 순서이며, 국교 저학년 대상의 독서회가 10개관, 취학전 어린이를 위한 독서회는 한 도서관에서도 조직되어 있지 않고 있다.¹⁶⁾

다음으로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독서행사의 일환으로 문학의 밤 또는 시낭송대회를 개최하는 도서관이 6개관, 4개관에서 음악감상 시간을 가지고 있다. 주부를 대상으로 교양과 여가선용교육을 위주로, 서예·한문·꽃꽂이 강좌 및 각종 교양강좌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대도시 일부 도서관에 한하고 있다.¹⁷⁾

문화활동의 기본이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볼 때, 방학중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참여범위가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고 운영기간이 짧으며 교육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것 같다. 독서교육이 국민 독서생활화 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취학전 어린이로부터 시작하여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III. 한국의 문화

1. 한국의 문화현상

문화를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물질·제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과 관계되는 모

16)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표준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pp.53-54.

17) 신계서, pp.55-56.

든 것으로 의미한다고 볼 때, 한국의 문화는 한국인이 그들의 삶을 위하여 행하는 공연, 전시 및 문학예술과 그 삶에 대하여 가지는 정서와 가치이념과 그리고 체육, 취미활동, 매스미디어 레크리에이션 등 여러가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의 한국문화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소비적 문화이다.

문화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문화를 문화의식이 낮은 일반대중에게 전파시켜서 생활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에 있어서는 문화의 대중화는 바람직한 것이다.¹⁸⁾ 그러나 TV에 의한 문화내용물은 상품성을 전제로 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내용 또는 각 계층의 취향문화를 다양하게 개발하기 보다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저속하고, 퇴폐적이며, 저질적인 것이 되기가 쉽다.

(2) 외래문화적이다.

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발전목표를 선진사회의 것에 따랐다. 따라서 문화적으로도 자신의 고유문화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선진사회의 문화를 모방하고 추종하게 되었다.¹⁹⁾ 우리는 일제에 의해 전통문화를 말살당하고 또 미국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다시 찾고 우리의 사회구조에 알맞는 새로운 문화를 개발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 문화는 해방 후 밀려오는 외래문화에 눌려 설 자리와 자생력을 잃고 철저하게 외래지향적으로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외래문화의 무비판

18) 이강수, *한국대중문화론*, 서울, 법문사, 1987, p.111.

19) 최홍기, “*한국문화의 자생적 전개*”,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화*, 서울, 나남, 1987, p.32.

적인 수용으로 전통에 대한 단절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외래적 문화역량이 너무 커져서 전통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외래문화의 무비판성의 실례를 아동도서 출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지난 80년대의 10년간 간행된 동화책 2,937종 중에서 89%가 외국동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인전기물의 78%가 외국위인으로 나타났다.²⁰⁾

(3) 산업사회의 한국문화는 힘의 문화이다.²¹⁾

구한말에 서구문화에 대응해야 하는 환경의 변화와 60년대 이후의 공업화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었다. 개인은 성공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가지거나 튼튼한 재력이나 권력을 가짐으로써 가능하였으며, 국가의 지위상승은 경제성장을 통한 국력을 양성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렇게 힘의 문화는 한국의 사회발전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였다.

(4) 지역간 세대간 문화의식의 격차가 심하다.

먼저 세대간의 문화의식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 ① 기성세대는 관념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생활양식은 전통주의, 권위주의, 연고주의적이다. 여기에 대하여 새로운 세대는 합리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있다.
- ② 기성세대는 출세지향의 인생관과 물질적 성공을 추구하는 반면 신세대는 자아의 실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 ③ 기성세대는 엘리트주의의 가치관을 보이나 젊은 세대는 대중적 인간의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²²⁾

다음으로는 도서관의 지식·정보접근에서의 계층간의 차이를 살펴보자.

20) 이중한, 김문한, 문화총매운동론, 서울, 현암사, 1987, p.174.

21) 임희섭, “전환기 사회의 문화와 문화변동”, 한국사회의 발전과 문학, pp. 25-26.

22)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문화변동, 서울, 현암사, 1984, pp. 24-25.

정보와 사상에 대한 효율적 접근은 시민이 그 시대의 여러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게 되며, 그것은 또한 지식을 갖고 투표에 참가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 그 자체로서 그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²³⁾ 또한 한 사회체계내에서 최대한도의 지식과 정보의 전달은 상이한 계층간의 지식과 문화를 균등화시킴으로써 민주사회에 있어서 공공의 문화 내지 공동의 문화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²⁴⁾ 따라서 정보와 아이디어에 자유롭고 등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는 원칙은 공공도서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읽고 쓰는 능력은 사회계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미숙련의 수작업 노동자의 자녀가 독서기회가 적어질 가능성은 전문직 노동자의 자녀가 갖는 것의 6배가 된다.²⁵⁾ 독서봉사 이외의 봉사에서도 빈곤지역을 차별함으로써 빈곤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상당부분은 도서기금과 직원이 도서의 대출기록을 토대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지역에서는 책은 수가 적고 더 오래된 것이며 직원은 수도 적고 자격도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 또한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은 낮은 또는 다른 요구를 갖게 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빈곤지역에 다른 유형의 책을 제공하며, 도서관 봉사의 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구성되는 실무단체에는 빈곤지역의 대표자가 포함된 적이 없었다.²⁶⁾

(5) 한국의 대중은 문화향수 능력이 부족하다.

인간이 문화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문화프로그램이나 양서 그리고 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문화에 접촉할 의사가 없거나 문화인식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한 문화작품도 소용이 없을 것이

23) B. Usherwood, *The Public Library as Public Knowledge*.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89, p.12.

24) 이강수, *살께서*, p.58.

25) B. Usherwood, *op. cit.*, p.22.

26) *Ibid.*, p.20

다. 따라서 문화적 삶의 요건으로서는 좋은 문화프로그램, 훌륭한 문화공간, 적극적인 문화욕구 그리고 문화의 인식·향수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문화현실은 감상할 만한 문화프로그램의 부족함은 말할것 없이 예술문화활동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문화공간의 부족도 심각하다. 그러기에 문화내용을 인식하는 능력이나 향수능력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 깊이있는 프로그램을 기피하고 재미있고 가벼운 것들만 즐겨 찾으며, 문화내용물을 보거나 읽는 것을 즐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화현실이다.

이렇게 우리의 문화현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지식이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 전통문화를 잊어버리고 저적 황무지인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커다란 정신적 공동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 공동은 경제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 문화적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즉 물질의 과다가 아니고 몇 권의 독서, 몇 편의 연극관람 등의 문화활동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모든 문화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키워주는 독서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우리 문화현상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다음에는 미래의 변화·발전될 우리의 문화유형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구조는 어떤 모습일 것이며, 거기에 적합한 바람직한 문화적 대안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러한 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질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하여 준비하는 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두가지의 주장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도서관적 대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성숙된 시민민주사회와 산업자본주의 사회로서의 한국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대안은 이성의 문화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다.²⁷⁾ 인간의 이성은 비판적 이성과

27) 임희섭, "전환기사회의 문화변동", pp.27-28.

창조적 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판적 이성과 창조적 이성에 기초한 이성의 문화는 첫째, 충동과 본능, 감정과 욕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서와 인성을 통한 합리주의를 지향한다. 둘째, 절대화된 가치, 권위주의적 가치, 배타적·독선적 가치를 인정치 않고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여 갈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공동체사회를 이상화한다. 셋째,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인간주의를 신봉한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이 절대자·사회제도·과학·기술 등에 의하여 상실됨을 용납하지 않으며, 소외의 상태에 빠져들지 않으며,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질과 주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질서를 이상화한다.²⁸⁾

이러한 이성의 문화가 성숙된 사회의 성원들을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시킴으로써 대중사회속에서 느꼈던 소외감을 극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원 상호간의 이해로서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성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성의 문화는 어떻게 해서 이룩하고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도서관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은 바로 양서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질과 문화와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맞게 되는 21세기는 20세기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것은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문명 그 자체의 변화를 예고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우리의 대처방식도 19~20세기적 발상과 처방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러한 세기적 발상의 전환과 태세의 전환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내적 목표는 급속한 양적 성장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질과 문화와 생명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발전모델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인 욕구상승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전천후 24시간의 아이디어 개발, 창의력 동원, 신기술 개발, 지력·두뇌력·정

28) *심계논문*, pp. 17-29.

보능력 등의 극대화로의 발빠른 변신을 끊임없이 지속해야만 한다.²⁹⁾

이상에서 아이디어, 창의력, 신기술 개발과 지력, 두뇌력, 정신능력 극대화는 바로 교육을 통한 결과이며 그것도 일생을 통하여 꾸준히 계속되는 자기개발교육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자기개발교육은 도서관 혹은 독서를 통하는 것일 것이다.

2.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는 한 사회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하위문화로서 청소년들이 선택하고 창조하는 삶의 문화요, 그들의 취향문화이다. 이 청소년문화의 성장에 관계되는 요인은 그들의 사회화 과정을 주도하는 가정과 학교가 있으나, 더욱 중요한 요인은 매스미디어를 주로 하는 사회적 환경이다. 이들 요인 중 가정은 청소년들의 성장을 주도하는 교육자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있으며, 학교 또한 창조적인 청소년으로 자라게 하는 역할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가 청소년의 사회화과정에 가장 두드러진 영향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T. V. 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에게 허상을 계발시킴으로써 일종의 신화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있다. 지적 세계에 있어서의 우상이 아니라 소비세계의 우상을 만들고 있어 그들의 세계는 지적 황무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문화는 너무 일방적으로 쾌락지향적, 유희지향적, 소비지향적 문화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적 문화가 설 땅을 상실해 버렸다.³⁰⁾

이런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은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의모나 행동양식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표현양식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지금 까지 사회를 지배해 오던 인습적 규범이나 가치에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으로

29) 조선일보, 연두사, 1995, 1. 1. (2).

30) 이강수, 살계서, p.85.

변화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가지거나 지위나 부를 얻기 위한 위계 질서에 복종하기 보다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더욱 추구하는 등의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문화가 되며 그래서 오늘의 청소년의 위치는 적어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핵심적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도서출판문화면에서 성공하는 책들의 중심독자가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이 청소년문화가 우리문화의 지배적 위치에 있음을 알게 해 준다.³¹⁾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우리의 청소년문화는 도서 또는 독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일까. 우리의 아동, 청소년들은 도구주의 교육관에 의해 상급학교 진학의 목표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겨 다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지적, 예술적 문화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며 특히 교양서적의 독서시간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다시피하다.

우리 아이들은 읽을 책이 없다. 부모들은 교과서만 읽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밖에 딴 필요한 책이 있다면 시험문제집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험문제와 만화와 텔레비전과 유행가 속에 살고 있으며,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모르고 다만 편리하고 쉬운 것만을 찾는다. 그리고 부모들이 책을 사주지 않으니 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아동문학 작가들도 아이들을 버리고 있다. 작품의 내용이 아이들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고 너무 어려운 말을 쓰고 있음으로써 아이들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다.³²⁾

이상의 짧은 문장은 우리의 아동, 청소년도서와 독서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무지한 부모, 잘못된 교육,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31) 이중한, 김문환, *상께서*, pp.239-243.

32) 이오더, *참교육으로 가는 길*, 서울, 한길사, 1990, pp.305-306.

아동문학 작가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아동도서는 절명의 순간에 있는 듯하다.

대부분이 외국 것의 복사판인 유아용 도서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문화나 의식구조의 서양화를 초래하고 있고³³⁾, 황당무계한 줄거리와 억지웃음을 강요하는 명랑소설이 판을 치는 가운데³⁴⁾ 욕구에 비하여 과학도서는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온갖 만화와 연예기사, 스포츠기사로 가득 채워진 잡지, 여성지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어린이 잡지는 많으나³⁵⁾ 어린이용 순수 문예지는 거의 전멸상태이다. 아이들이 보는 일간신문이란 것이 몇몇 신문사에서 나오고 있으나 그것도 만화와 시험문제 투성이다. 단행본도 비교적 성실히 내고 있던 출판사조차 이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문을 닫고 있다. 기껏 낸다는 것이 외국의 번역물을 쌔구려 원고료를 주어 책모양만 곱게 꾸며 내고 있는 형편이다.³⁶⁾

결국 상업성위주의 출판태도나 오락중심으로 꾸며져 내용이 저질스럽게 되어버린 아동, 청소년 도서는 청소년문화를 지적 황무지로 만들고 말았다.

어린이, 청소년은 한 나라의 희망이다. 청소년에 대하여는 국민적 기대가 있는 것이고 이 기대를 성취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도서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도서에는 인간다움, 인간적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사회가치로서의 문화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 한다. 유아와 어린이의 인지 및 상상력 개발,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덕성과 청의적 사고력은 이러한 능력의 육성에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 요소들의 개발은 독서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33) 조대현, "유아용 도서, 미래로 좋은가", 출판저널 18호, pp. 12-13.

34) 조대현, "아동도서의 상업주의를 경계한다", 출판저널 13호, pp. 16-17.

35) 김영심, "내 아이는 읽지 않기를 바란다", 출판저널 18호, p. 10.

36) 이오덕, 상계서, p. 35.

3. 한국인의 독서경향

한국 대중文化의 구조적 문제점은 정신문화를 지탱할 수 있는 문화환경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인간의 욕구에는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인 욕구로 나눌 수 있는데, 정상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정신적 욕구가 물질적 욕구에 우선할 수 있는 문화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이 신문이나 잡지, 서적 기타 읽을거리를 통하여 정신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면, 자연히 물질적인 향락이나 낭비적인 면에 빠지게 된다. 한 나라에서 정신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뿐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이 읽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함은 물론, 이같은 습관을 기르기 위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³⁷⁾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처럼에도 우리의 독서환경이나 경향은 너무 평균화되어 있다.

먼저 한국인은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³⁸⁾ 두번째로 책은 빌어서 읽는 유형보다 사서 보는 유형에 익숙해 있다.³⁹⁾ 세번째로 휴식용 도서를 교양도서로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⁴⁰⁾

그리고 대체로 책읽기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책읽기는 좋은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책을 읽어야 한다는 낭비적 외침만이 요란한 것 같다. 또한 양서선정이나 독서방법 및 기술 등의 지도로 도서관과 사서를 통한 책읽기가 더욱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용습관이나 독서습관의 미숙으로 도움과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의 여가활용방법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에 여가활용방

37) 이상철,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일지사, 1988, pp.180-181.

38) 상계서, p.181.

39) 이중한, 김문환, 상계서, p.216.

40) 상계서, p.215.

법중 감상·관람에 5.3%, T.V시청 24.5%, 창작적 취미 오락(독서활동 및 예술감상활동) 5.4%, 잡기 및 승부놀이 5.7%, 스포츠 및 여행 12.3%, 수면 및 가사잡일 44.0%로 나타났다. 1993년도에는 창작적 취미오락이 3.7%로 나타나⁴¹⁾ 예술감상 및 독서활동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책 한 권을 사고 읽는 문화프로그램이야말로 가장 값싸며 가장 득이 많은 문화적 삶의 방법임을 인식하기에는 우리의 독서수준은 너무 유치한 것 같다.

결론적으로 건전한 정신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알맞는 문화환경이 조성되어야하며 그 문화환경의 핵심은 내용이 충실히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와 이용자의 인간적 만남이 있고, 필요한 자료가 구비되고, 책읽는 분주함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 깨우침을 얻고 그럼으로써 매일 성공적인 삶을 주민들이 이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서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공공도서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근래에 발표된 한 논문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 (1) 교육부 내무부 및 문화체육부 등 3부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는 도서관정책이 심하게 혼란상을 나타내고 있다.
- (2) 행정부서가 필요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정부서와 사서들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사항이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
- (3) 공공도서관의 재정이 매우 영세하다.
- (4) 관장직은 주로 정년이 임박한 원로 행정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 (5) 현장을 구성하는 전문인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열악하다.

41)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1993, p.303.

(6) 소장 자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극히 열악하다.⁴²⁾

예산, 제도, 인사, 자료 등 도서관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 모두가 평균수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열악한 지경에서 평생교육과 문화의 중심체로서의 지위를 지키기에 는 크게 역부족이다.

4. 문화현상과 독서경향의 관계

앞절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문화현상은 큰 정신적 공동을 남길 정도로 황폐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그 공동을 매울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아사의 지경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하고 있다. 다만 역할이 있었다면 공부방으로서의 그것 뿐이다. 그러니 문화를 재생시키거나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V. 독서의 효과

독서가 개인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명저가 개인의 사고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사고에 미친 영향이 행동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독서는 학습의 한 과정으로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된다. 어떻게 배우는가를 알지 못하지만 양서를 읽음으로써 유익한 배움이 있음을 틀림없다. 그러나 뇌와 눈, 뇌와 인쇄된 언어사이의 불가사의한 관계와 학습과정에서 이것들의 역할이 신비에 쌓여 있음으로써 어떻게 배우는가를 알지 못한다. 다만 배움이 있고 그 배움으로써 인간

42) 김정근, 장덕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7집(1994. 12), pp.26-49.

내면에 변화를 가져오며 그 변화는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실증되기 어려운 우리들의 합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합의된 독서의 효과 즉 도덕성, 창의성, 사고력 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1. 도덕성

오늘의 한국 사회는 극심한 도덕적 위기를 맞고 있다. 과연 이 위기는 우리 사회의 양서와 독서가 부족하고 부재한 현상과 관련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독서 행위가 이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인지론자들은 도덕적 가치의 발달은 인지발달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아동의 도덕성은 연령적으로 성숙해감에 따라 지적발달과 동일한 양상으로 단계의 순서에 따라 발달해 간다고 한다.⁴³⁾ 그런데 이 인지적 성숙은 정상적인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래와 성인과의 상호작용 또는 일정한 학습과정, 단체활동, 독서활동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이다.⁴⁴⁾

한국사회를 도덕적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육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교육은 대단위 학급, 과중한 업무부담, 입시교육의 압력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사가 학생의 인격형성과 발달에 개별적 관심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성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 도서관의 도덕성교육의 역할이 기대된다.

근래에 도덕과 수업에서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학습이론이란 아동은 직접적 훈련에 의해서 뿐만 아니고 관찰에 의해서도 여러 사회적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의 근거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이 여러 가지 사태나 사물을 관찰하고 어떤 대상을 모방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이 때

43) 이영, 조연순, 아동의 세계, 서울, 양서원, 1992, p.421.

44) 임희섭,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 1994, pp.269-277.

단순히 구체적 행동뿐 아니고 모델이 보이는 도덕적 판단과정이나 도덕적 가치관과 태도까지도 모방할 수 있다고 본다.⁴⁵⁾

여기서 사태나 사물을 관찰하고 어떤 대상을 모방한다는 것은 곧 독서행위를 통해 여러 사회적 특성을 학습하는 것으로서 모델이 어떤 행동으로 보상을 받으면 모방을 하고자 하며 벌을 받으면 모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이 때 아동은 기억되어 있는 기존의 지식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하여 행동을 통제하기도 하여 자율적으로 행동의 결과를 예전하면서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적절한 내용의 책읽기를 함으로써 책속의 모델이 보이는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도덕적 규범에 대한 태도, 도덕적 문제해결의 과정까지도 모방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독서는 자율적인 학습행위로서 아동이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다. 이때 행동의 결과예견이나 스스로의 판단결정에는 아동간에 개인차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은 도서의 선정문제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 결국 도덕교육이 사회교육기관인 도서관이 실시하는 사회적 학습인 독서에 의하여 수행될 때도 도덕성 발달이 추구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2. 창의성

창의성이란 새롭고 진기한 면을 보는 능력이며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는 능력이고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새롭고 신기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능력이다.⁴⁵⁾ 다시 말하자면 창의적 결과란 독창적인 동시에 적합한 결과이고, 창의적인 사람·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창의적 결과를 꾀 자주 생산하는

45) 이성진 등저, *한국아동의 도덕성발달 실태와 도덕교육 방향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 행동과학연구소, 1982, pp.130-131.

46) 이영, 조현순, 심계서, p.457.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럼, 시 또는 이론뿐만 아니라 농담, 웃모양, 정원, 자동차수리 등등 모두가 창의적 결과들이 될 수 있다.⁴⁷⁾

이런 의미의 창조성은 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1) 창의성은 강렬한 열망과 준비를 통해 일어난다.
- (2) 창의적인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 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의 추구에 있어서의 위험을 무릅쓰고 명백한 해결안들을 거부한다.
- (3) 창의성은 외부적인 동기부여보다는 내부적인 동기부여와 관련된다.
- (4) 창의성은 아이디어를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한다.
- (5) 창의성은 때때로 사고를 자유롭게 흐르도록 강한 물들을 벗어남으로써 조장될 수 있다.⁴⁸⁾

그렇다면 이제 창의성 현상에 대해 많이 알려진 기체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사고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과정들—추론, 패턴인식, 기억인출, 그리고 평가와 같은 과정들—은 제대로 조합되기만 하면 낯선 설명에 의존할 필요없이 인간의 창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⁴⁹⁾

다음으로 지능은 어느 정도 창의성을 가능하게 하지만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 즉, 지능이 높을수록 창의적이 될 가능성은 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 안될 수도 있다.⁵⁰⁾

세번째로 비평과 종결을 미루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출을 강조하는 머리짜내기(brainstorming)는 창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⁵¹⁾

네번째로 유추적 사고는 창의성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보고 있다.⁵²⁾

47) R. J. Sternberg and E. E. Smith, 이영애 역, 인간사고의 실리학, 서울, 고문사, 1992, p.347.

48) 성일제, 사고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배영사, 1989, p.82.

49) R. J. Sternberg and E. E. Smith, 심계서, p.354.

50) *Ibid.*, p.357.

51) *Ibid.*, p.365.

52) *Ibid.*, p.366.

이상의 기체들 즉, 사고과정들, 지능, 머리짜내기, 유추적 사고 등은 창의성 발휘에 필요한 지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볼 수 있다. 훈련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 특히 직접적 경험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기준의 심적 요소들 - 개념, 심상, 원리 - 등은 창의적 과정에 원재료가 되며 이 요소들의 조합이나 수정이 신기하리만치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필가들이 뱃사람, 의사,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졌던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데 유익한 것들로서 창의적 글을 쓰는 데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과연 창의력은 독서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독서는 창의력 개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상상력을 키워 주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양서 선정 기준이며,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도서는 창의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⁵³⁾ 독자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구성되어 있는 단편소설이 창의력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가치있는 생을 기록한 자서전에서 흔히 그가 생각하는 상상의 방법에 있어 탁월했던 부분이 또한 창의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⁵⁴⁾

이와 같이 독서를 통한 아이디어 개발은 책속의 진실을 얻기 위한 적극적 독서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내용의 이해를 위한 적극적 독서행위가 이루어질 때 책속에 담긴 내용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3. 사고력

갈수록 다양화·다기화되어가는 오늘의 사회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선택과 판단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깊고 넓은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의 삶은 맑을

53) A. F. Osborn, 신세호 외 공역,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84, p.98.

54) 상계서, p.99.

통하여 가능하며 얇은 사고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사고는 얕과 깊을 연결하여 얕을 이용한 깊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하나의 인간심성이다. 생각은 곧 보는 것이다. 단순히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째뚫어 보는 것 즉 통찰의 뜻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보고 듣는 것을 넘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사고로써 가능하다. 사고는 반성과 명성이다. 반성은 사고의 폭과 깊이를 더해 주는 것이며, 명성은 사고를 발전되게 하는 것이다. 또 사고는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경험없이 사고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⁵⁾

사고의 이와 같은 속성은 사고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다. 즉 아동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이거다라고 집어주는 대신 의문의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스스로 찾아가게 하고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다른 쪽의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⁵⁶⁾ 사고교육은 끊임없이 거듭 생각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보완적 사고과정을 통하여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통정된 인간이 되게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⁵⁷⁾

사고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이고 허약한 단편적인 유능성으로부터 여러 상황에 두루 적용되어지는 보다 완전하고 융통성 있는 강한 능력들로 발달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처리용량에서, 지식에 대한 접근에서, 그리고 지식기반에서의 발달적 증가들은 사고의 성장을 가져오는 여러 측면의 요소이다. 그리고 지식의 증가는 용량과 지식접근성의 증가의 중요한 근원이므로 지식증가는 사고발달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⁵⁸⁾

지식의 증가는 책을 읽음으로써 이루어진다. 필요한 지식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들을 계발, 연구, 조사, 개발 작업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이가

55) 성일제, *상계서*, pp. 20-21.

56) *상계서*, p. 23.

57) *상계서*, p. 30.

58) R. J. Sternberg and E. E. Smith, *상계서*, pp. 422-428.

경제적 만족, 시민적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⁵⁹⁾ 사람은 스스로의 지혜에 따라 지식을 이용하며 살아간다. 지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을 줄 알고 책을 읽는 데서 깊은 의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⁶⁰⁾

독서는 간접경험을 통해 상상을 가져다주어 흥미를 유발한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능력이 저자의 일차적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 더 큰 상상력으로 확대되는 것이 독서의 하나의 중요한 효용이다.

V. 결 론

문화는 인간의 태도와 가치를 집단별로 사회별로 유형화시킨다. 따라서 한국인의 부도덕한 의식은 우리 문화의 결과이다.

도서관은 문화를 기본적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의 문화중심체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문화의 변화 개선 또는 바람직한 문화창조에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문화현황과 도서관의 핵심봉사인 독서의 효용을 살펴보고, 양·요소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문화유형을 찾아서 그것을 창조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의 문화현상이 지극히 황폐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공도서관 역시 아사지경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우리 문화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었으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59) 김효정 등저, *독서의 힘*, 서울, 구미무역(주) 출판부, 1992, p.16.

60) 이병주, 안병욱 공저, *독서와 지적생활*, 서울, 시사영어사, 1988, pp.8-9.

2. 정신적 욕구가 물질적 욕구에 우선하는 문화환경이 조성되면, 정상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문화환경 조성은 충실했던 내용의 양서를 읽음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독서 교실행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더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덕성, 창의성, 사고력 등을 증진시키면 문화환경조성이 가능하게 되면서 황폐된 문화를 재생하거나 개선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미래의 성숙된 시민민주사회와 산업사회로서의 한국사회는 질, 문화, 인간,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로서, 이성으로만 지배가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고, 여기에 적합한 문화유형은 이성의 문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성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아이디어와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창의력, 지력, 상상력, 정보력의 극대화가 요구되고, 이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서관을 이용한 계속적인 자기교육, 즉 독서를 통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on the Cultural Development of Korea

In-Ung Park*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① Korean culture and public library look extremely wasted equally. Judging from this fact, I believe that it is impossible for public library can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② But, public library can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culture in the cultural environment that mental desire is prior to physical wants. This cultural environment can be built up with reading of good books. Therefore, if class to reading education and diverse reading education programs can be activated in a large portion of the nationwide public libraries and the majority of a local resident are capable of improving their creativity power, thinking power and imaginative faculty, public library can contribute to produce such cultural circumstances.

③ Quality, culture, a human and mind receive much respect in Korean Society as advanced civil, democratic and industrial society in the future. The Society will be influenced by reason and rational culture will be suitable to this society. Creativity power, thinking-power, imaginative faculty, intelligence and power of information management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are demanded to the greatest degree for the development of idea and new technology in the society under the control of rational culture. So, lifelong education with library use is the most fruitful and inexpensive way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powers.